

# 주간 테러동향

## Weekly Terrorism Trends

'22.12.2(금)

### 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#### 유럽

- 英, '24년까지 주요공항 '3D 보안검색 장비' 도입 추진
  - 11.24 英 교통부는 '24년까지 주요공항 內 '고정밀 컴퓨터단층촬영 스캐너'\* 비치할 추진, 정밀검사가 가능해짐으로써 100mL 초과 액체류 기내 반입 제한과 수하물 전자기기 꺼내놓기 등 규정이 사라질 전망
  - \* X선을 활용하는 병원 CT검사와 동일한 원리로 액체류·전자기기를 3D로 검사
- 우크라이나, '이란인 자폭드론 교관' 제거
  - 11.24 외신은 최근 우크라이나군이 이란제 자폭드론 사용법을 러시아 군에 교육중인 '이란인 교관'들을 제거하였다고 보도하는 한편, 해당 사실을 근거로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의 국제전 비화 가능성 제기
  - \* 최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반시설 공습에 사용해온 이란제 자폭드론 '샤헤드-136'을 러시아 본토에서 생산하기 위해 이란과 합의한 것으로 추정

#### 미주

- 美, 시카고 공항에서 '가방에 폭탄' 농담한 여행객 체포
  - 11.25 美 시카고 오헤어국제공항에서 남성 여행객이 수하물 운반 담당 공항 직원에게 "가방에 폭탄이 있다"고 언급(농담)하자 폭발물 처리 요원이 출동하는 소동이 발생, 시카고 경찰은 해당인을 체포
  - \* 시카고 경찰은 "결코 웃어넘길 수 있는 농담이 아니다"라며 해당 여행객 상대 조사 중
- 美, 러시아 민간 '바그너 그룹' 테러조직 지정 검토
  - 11.30 외신은 美 행정부가 우크라이나 등지에서 러시아를 대신하여 군사작전 수행 중 민간인 학살·고문·성폭행 등을 자행한 민간군사 기업 '바그너 그룹'에 대해 '테러조직' 지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
  - \* 美 행정부가 '테러조직' 지정시 조직원 대상 자산동결·형사 기소 등 가능

## 아 · 태평양

### ○ 호주, 테러위협 수준 1단계(3→4단계) 하향

- 11.28 호주보안정보기구(ASIO)는 언론 브리핑에서 “자국내 잠재적 테러는 잔존하지만 극단주의자는 거의 없다”고 강조하며, ‘14년 이후 처음으로 테러위협 수준을 ‘POSSIBLE’로 하향 조정했다고 발표

\* 호주 테러위협 수준(총 5단계) : 1단계(CERTAIN) → 2단계(EXPECTED) → 3단계(PROBABLE) → 4단계(POSSIBLE) → 5단계(NOT EXPECTED)

### ○ 국토부·항공안전기술원, ‘드론 전용비행시험장’ 착공

- 11.28 국토부는 경북 의성에 ‘드론 전용시험비행장’ 건설공사를 착공, △비행 통제센터 △드론 재밍테스트 장비 △비행 시뮬레이터 △레이더 시스템 등 구축 후 ‘24년부터 해당 시설을 본격 운영 계획임을 발표

## 중 동

### ○ 시리아 민주군(SDF), 튀르키예 공격 지속시 ‘ISIS 수용소 경비 불가’ 경고

- 11.28 英 BBC는 최근 시리아 북부의 ISIS 수용소 경비를 맡고 있는 SDF사령관이 “튀르키예가 수용소와 자신들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경우 수용소 경비·관리가 중단될 수 있다”고 경고했음을 보도

\* 튀르키예는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테러 배후에 쿠르디스탄노동자黨(PKK)과 연계 세력이 있다며 시리아·이라크의 쿠르드인 거주지역에 보복성 공격 지속

## 아프리카

### ○ 소말리아, 수도 모가디슈 소재 호텔 테러로 8명 사망

- 11.27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市 소재 호텔에서 알샤바브에 의한 테러 공격이 발생, 18시간의 인질극 끝에 민간인 8명이 사망하고 다수가 부상당하였으며, 테러범들은 소말리아 보안軍에 의해 진압

\* 지난 8월에도 同 지역 호텔에서 30시간의 인질극 끝에 사망자 21명 발생

## 美 미시간주 옥스포드 고등학교 총기난사

- '21.11.30, 13:00경 반자동 권총으로 무장한 美 옥스포드 高(Oxford High School) 2학년생 「에단 크럼블리」(Ethan Crumbley, 15세)가 교내 복도 및 교실에서 약 5분간 총기를 난사, 사망자 4명, 부상자 7명 발생
- 사건 당일, 범인은 총기를 은닉하고 등교하여 교내 화장실에서 무장한 뒤 학생들이 군집하는 쉬는 시간에 범행 시도
  - 1차 총격은 각자 교실로 이동하던 수백명의 학생들이 모인 중앙 통로 구간에서 시작되었으며, 2차 총격은 인근의 교실에서 발생
  - 범인 제압을 시도하던 학생 「테이트 마이어」(Tate Myre, 16세)가 최초 총격을 받고 사망하였고, 뒤이어 교사 1명을 포함한 10명 추가 사상
- 총격 발생 직후, 옥스포드 고등학교 교직원들은 평소 적용해오던 총기난사 대응 프로그램 'ALICE\*'를 발동하여, 피해 최소화
  - \* ALICE : Alert(경고), Lockdown(폐쇄), Inform(신고), Counter(대응), Evacuation(대피)
- 한편, 美 지역검찰은 범인의 정치·종교적 범행동기는 확인하지 못했으나, '일급살인'죄 및 美 교내 총기사건 최초로 '테러 혐의' 적용
  - \* 美 지역검찰은 미시간주 법령에 따라, '폭력으로 대중을 위협·강압'한 죄목을 근거로 '테러 혐의'를 적용하였으며, 범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

## 테러 상식

### < 총기난사 대응 프로그램(ALICE) >

- (의미) 美 노동부 주도 직장 內 '범죄예방 및 안전확보'를 위해 시작된 프로그램으로, 총기난사범이 회사 또는 학교 침입 시 대피·대응 절차를 규정하고 훈련을 제공하여 피해 최소화
- (배경) 전문분석기관에 따르면, 66% 이상의 총기난사 사건이 경찰 도착 이전 상황이 종료되므로,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총기난사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행동 매뉴얼 및 훈련 솔루션 개발
- (주요내용) ① Alert(경고) : 교내방송·SNS 등 모든 채널을 통해 사건 발생 전파  
 ② Lockdown(폐쇄) : 범인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출입구 봉쇄 등 조치  
 ③ Inform(신고) : 경찰·소방 등 신고를 통해 지원요청  
 ④ Counter(대응) : 비상 시 협력하여 범인에게 대응  
 ⑤ Evacuation(대피) : 안전한 탈출경로를 통해 질서정연한 대피